



경찰역사 66년만에 첫 여성 치안감 탄생 이금형 광주지방청장

“난관 정면 돌파 강한 경찰 만들겠다”

“광주경찰, 더 나아가 광주시민들이 있어 첫 여성 치안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현직 유일의 여성 지방경찰청장인 이금형 광주지방청장이 치안감으로 승진, ‘직무대리’라는 꼬리표 폐기로 성공했다.

경무관이 된 지 2년만의 일로, 여성 첫 치안감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다. 충북 청주 출신인 지난 197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지 34년만의 일이다.

“승진한 것도 기쁘지만 계속 광주에 머물 수 있게 돼 더 기쁩니다. 앞으로 직원,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는 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 광주지방청장 직무대리로 광주를 찾은 이 청장은 6개월째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광주지역 지구대를 방문해 어려운 곳에 지침대로 지친 일선 경찰들과 해장을 먹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재수사로 고달픈 수사팀과는 비정기적으로 ‘삼겹살 회식’을 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걱정 안전한 길을 조성하겠다며 광주 경찰이 꺠내든 ‘치안 음례길’도 이 청장의 작품이다.

“여경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경찰은 가사와 일을 병행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만큼 심신을 감안하게 하고 가끔 난관에 부딪쳐도 정면 돌파할 것을 당부하고 싶어요.”

이 청장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성 청장 부임 이후 내놓은 새로운 정책이나 지시사항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 ‘지나친다’는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고 저안 음례길 역시 ‘전시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 때마다 이 청장은 ‘실천’과 ‘꾸준함’으로 이겨냈다.

“경찰이 된 뒤 충경이 꿈이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과거 그랬던 것처럼 긍정적 사고로 자신감을 갖고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남편 이인균(54)씨와의 사이에 3녀를 두고 있는 이 청장은 ‘자식 농사’에도 성공하고 지난 2008년에는 동국대에서 경찰행정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또순이’로 알려져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고법, 시장상인연합 회장단 초청 법원 견학

광주고등법원은 23일 광주 시장상인연합회 소속 18개 시장의 회장단 22명을 초청, 법원의 업무를 설명하고 주요 시설을 소개했다.

회장단은 민원실, 판사실, 법정 등을 둘러보고 법관과의 대화를 통해 평소 법원이나 재판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물은 뒤 대규모 마트에 맞선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활동과 전통시장 상품권 홍보에 나서줄 것을 관사들에게 요청하기도했다.

또 시장연합회 회원들의 정기회의를 법원 회의실에서 열어 법원과의 거리를 좁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학생은 물론, 직장인 단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원 견학행사를 상시 추진하고 시민의 요청에 따라 공보관사 등 법관들의 ‘찾아가는 강연’도 실시하는 등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법원 견학이나 출장 강연을 원하는 단체는 광주고법 홈페이지(<http://gigodung.s-court.go.kr>) 또는 총무과(062-239-1167)에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외규장각 도서반환 기여 박병선 박사 타계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들을 반환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재불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가 22일(한국시간 23일) 프랑스에서 타계했다.享年 83세.

지난 8월 파리에서 수술을 받은 박 박사는 파리에서 15구 간 가르니에 병원에서 요양을 해오던 중 이날 밤 10시40분(한국시간 23일 오전 6시 40분)께 별세했다고 병원과 유족 측이 전했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일단 박 박사의 빈소는 주불한국문화원에 차린 뒤 유족 등과 장례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천주교 신자인 박 박사는 결혼을 하지 않아 직계가족이 없으며, 평소 자신이 숨지면 화장해 프



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변에 유해를 뿐이라 끌 것을 당부해왔다

고 친지들은 말했다.

박 박사는 유언으로 그동안 준비 작업을 해온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 2편’의 저술을 마무리 지어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정부는 박 박사가 1967년 발생한 동백립 사건 이후 프랑스로 귀화했지만 외규장각 도서 반환 등 국가적 공로가 큰 점을 인정,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민원행정 우수 행안부장관 표창

광주 서구(청장 김종식·사진)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행정 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4일 열리는 제2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장을 수상한다”라고 밝혔다.

민원행정 합동평가는 지난 한해 동안의 민원행정 추진상황에 대해 민원처리의 적정성, 민원제도 개선실태, 민원서비스 개선도, 민원24 활성화 추진 등 4개 지표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민원행정 합동평가는 지난 한해 동안의 민원행정 추진상황에 대해 민원처리의 적정성, 민원제도 개선실태, 민원서비스 개선도, 민원24 활성화 추진 등 4개 지표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박 박사가 1967년 발생한 동백립 사건 이후 프랑스로 귀화했지만 외규장각 도서 반환 등 국가적 공로가 큰 점을 인정,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구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제도 개선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민원 마일리지와 외국인 민원도우미 배치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식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목포대 문홍섭 교수 병원약사대회 공로상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 약학과 문홍섭 교수가 최근 한국병원약사회 창립 30주년 기념 2011 병원약사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서부처제본부=이상선기자 sslee@



다. 이번에도 전국에서 수백명이 응시했지만 최종 합격자는 오씨를 포함해 3명이다.

오씨는 22일 “우리 농민들이 이 실질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겠습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의 최고 영예인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은 물론 풍부한 실무경험 등 실력을 갖춰야 할수 있다”며 “자신은 물론 여수시의 위상을 높인 개가”라고 축하했다.

/동부처제본부=김정희기자 chkim@

국립공원의 야생화

한쪽으로 치우친 다섯 꽃잎...반쪽이 그리워



<150> 수염가래꽃

수염가래꽃은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

로 논들이나 습지에서 자란다.

꽃 모양이 턱에 난 수염 또는 흙을 파는 농기구인 ‘가래’를 닮은 수염가래꽃은 수술이 먼저 성숙하는 ‘웅예선숙’(雄蕊先熟) 형이다. 암술과 수술의 성숙시기를 다르게 해 자가수분(自家受粉)을 막는 지혜를 가진 식물이다.

〈박성태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박종수 교수

여수서 ‘21세기 북한과 러시아’ 출판 기념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박종수 교수(54)가 최근 여수 파티랜드에서 하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세기의 북한과 러시아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박 교수는 “세계박람회를 통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고향 여수의 발전을 위해 러시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여수 출신인 박 교수는 여수 상고를 졸업한 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주 러시아 대사관 1등 서기관과 공사참사관을 역임했다.

/동부처제본부=박성태기자 mihang@kwangju.co.kr



이계만 평화연구학회장 내일 학술회의

이계만 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조선대 교수)은 ‘2012년 대선과 차기점부 과제-대선주자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국평화연구학회 2011 동계학술회의를 25일 오후 1시 조선대 정책대학원 세미나실(경상대학원 8층)에서 개최한다.

전남사회적기업 ‘Se-day’ 포럼



23일 목포대학교에서 전남사회적기업 ‘Se-day’(세~데이) 행사가 열린 가운데 전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신주한 연구원의 사회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관리방법 모색 등을 위한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임영재·이현숙씨 장남 지순군 김삼선(광주북부서 교통사고 조사계장)·이명숙씨 장녀 희원양 =12월 10일(토) 오후 2시 30분 서을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누벨바그씨작, 신부족 피로연 26일(토) 오후 5시 30분 광주 서구 농성동 페트리어트웨딩홀 2층 컨벤션홀.

▲박종대·김진숙씨 장남 믹윤균 공수현(광주경찰현 공동대표)·박경숙씨 장녀 인주양=26일(토) 낮 12시 40분 허리데이인 광주 호텔 3층 로즈홀.

▲김용진(건설업)·이성순씨 차남 율근 장영진(정다운 새마을금고 이사장·전 광주시 의원)·황희자(전 교사)씨 장녀 은영(디자이너)양=27

증진회

▲김녕김씨 광주시 종친회(회장 김형만) 정기총회=25일(금) 오후 6시 호남동 미송식당 011-611-4567.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여성희망키우기 사랑의 바자회와 손뜨개 전시회=26일(토) 오후 2시~오후 9시까지 북구동림

동·장애인복지관 구내식당 062-251-7482, 019-622-1721.

모집

▲이화유치원=친환경고자재 시공(편백나무 교실, 강당, 요리실습실, 사계절 수영장) 5~7세 유아 수시모집. 진월동 리채 3차 아파

트 열 062-367-0851~3.

▲2012학년도 살레이시오초등학교 신입생=원서교부 : 18일(금)~12월 1일(목), 교부교수 : 학교 수위실 및 학교 홈페이지(www.salesio.es.kr) 활용, 원서접수 : 29일(화)~12월 1일(목), 추첨일 : 12월 3일(토) 오전 10시, 062-227-1016, 1292.

▲박종관 주님(남/75세)

子/子婦 : 김태훈 / 소연진
女/婿 : 김민경 / 김대선 未亡人 : 노정숙
• 혼인201호
• 혼인301호
• 혼인401호
• 혼인501호
• 혼인601호
• 혼인701호
• 혼인801호
• 혼인901호
• 혼인1001호
• 혼인1101호
• 혼인1201호
• 혼인1301호
• 혼인1401호
• 혼인1501호
• 혼인1601호
• 혼인1701호
• 혼인1801호
• 혼인1901호
• 혼인2001호
• 혼인2101호
• 혼인2201호
• 혼인2301호
• 혼인2401호
• 혼인2501호
• 혼인2601호
• 혼인2701호
• 혼인2801호
• 혼인2901호
• 혼인3001호
• 혼인3101호
• 혼인3201호
• 혼인3301호
• 혼인3401호
• 혼인3501호
• 혼인3601호
• 혼인3701호
• 혼인3801호
• 혼인3901호
• 혼인4001호
• 혼인4101호
• 혼인4201호
• 혼인4301호
• 혼인4401호
• 혼인4501호
• 혼인4601호
• 혼인4701호
• 혼인4801호
• 혼인4901호
• 혼인5001호
•